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오늘은 우리 '하늘문교회 창립 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창립기념주일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오늘 낮예배 후에 연말정산당회로 모입니다.
5. 이번 주 토요일 (12/12) 청소담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2/13) 주일간식담당은 한나 목장(이영선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6. 12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물 심장, 고장 난 심장>,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	12월 27일
예배기도(2부)		조정석 집사	유종열 장로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이현호·안희순 집사가정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유희, 안성진, 추현희)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원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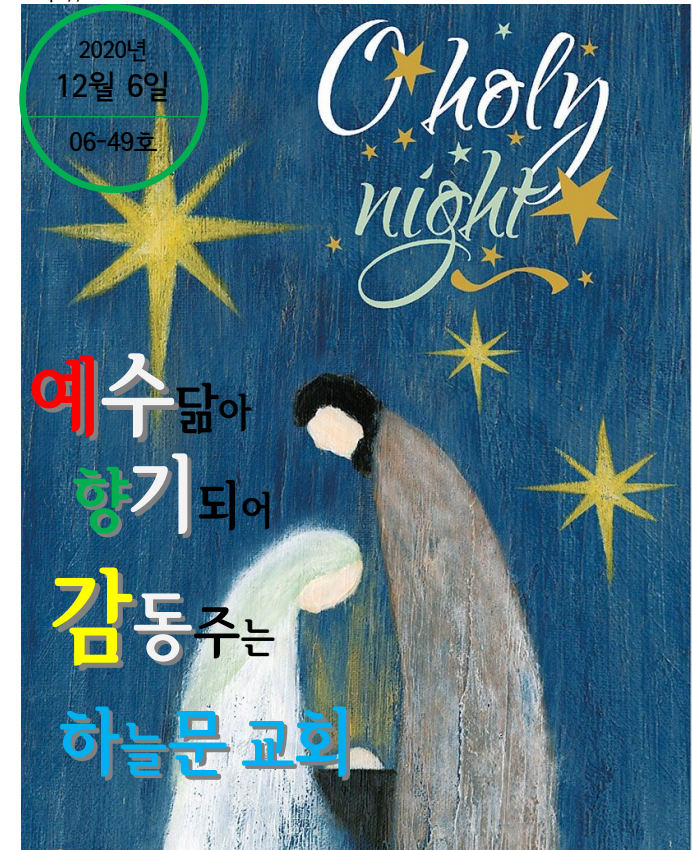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16번(구주강림2)	다같이
*경배찬송 10장(통 3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0장(통 98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조성석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9:20-27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웃을 입교'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8:12-17 '더 나은 삶을 향해'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2)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아닐지라도 해가 저물기가 무섭게 기온이 떨어져 한겨울임을 실감케 한다. 다시금 12월이다. 그런데 목양실에서 키우고 있는 모과나무 가지에는 눈망울이 맺혔다. 봄은 저만치 먼데 제철 마냥 짝을 틔울 심산이다. 세월의 흐름은 빠르는데 비해, 삶의 무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는 것 같아 때론 곤혹스럽다. 세월이 그렇게 사람 힘으로는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르다 보니 자연스레 기쁨도 회한도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보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다음에야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다는 게 맞는데, 정작 지금 이 시국은 자꾸만 몸 아끼고 도사리는 버릇이 늘어만 가는 것 같아 낭패다.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고서 터를 잡은 지도 벌써 네 해가 지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네 번이나 다 살아보았으니 4계절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졌다. 그 가운데 낙엽 뒹구는 늦가을 정취는 참 좋다. 시린 손 불어가며 월동준비에 이곳 저곳 돌아다보면 어느새 짧은 겨울 햇볕은 지고 만다. 얼마 있지 않으면 혹한의 겨울이 찾아 올 것이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속에 삶의 양상도 혹한의 힘겨움에 부딪히고 있다. 전국적 단위로 산발적 감염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0개월을 보내며 그 힘든 과정을 겪어왔으면서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젠 이골이 날 만도 한데 그러니 참 연약하다. 하지만 어찌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니 무를 수는 없겠고,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의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나쁜 것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우겨보자. 그러면 믿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진 그대로 갇아주신다는 능력의 말씀을 들려준다(민 14:27~28).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치도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걱정되고 조금은 힘겨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길은 가끔 좁고 험하고 가시덤굴에 덮여 있는 수가 있다.’고 대답하면 어떨까.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을 가져본다.

Written by 허영진